2013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성경의 핵심

메시지 15

욥기에 대한 위대한 대답

성경: 욥 1:1, 10:13, 42:5-6

I. **욥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을 다루시는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두 부분으로 된 위대한 질문을 남긴다—욥 1:1, 10:12-13, 13:3-4.**

II.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이 위대한 질문에 대한 위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곧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분의 선민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어 그들의 생명과 본성이 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시려는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가지신 그분의 영원한 의도이다—딤전 1:3-4, 엡 1:22-23, 3:9, 19, 창 1:26, 사 43:7.**

III.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육체되심을 통하여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이 되심으로써 사람 안으로 하나님을 건축하고 하나님 안으로 사람을 건축하여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을 얻기 위해 변화를 통하여 그 영 안에서 사람이 (신격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A. 영원하신 삼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의 가장 기이하고 탁월하며 비밀하고 모든 것을 포함한 변화는 그분의 영원한 경륜의 성취를 위한 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이다—요 1:14, 29, 3:14, 12:24, 행 13:33, 벧전 1:3, 고전 15:45 하, 행 2:36, 5:31, 히 4:14, 9:15, 7:22, 8:2.

B.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의 변화는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사람을 신격이 아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으로 만듦으로써 사람을 신화시키며,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으로 사람을 조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움직임이다—롬 12:2, 고후 3:18, 요일 3:2, 계 4:3, 21:11, 22:17 상.

IV. **이 우주 안에 있는 고난의 주된 목적,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련된 목적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람의 본성 안으로 일해 넣어짐으로써 사람이 충만한 정도로 하나님을 얻는 것이다—고후 1:8-9, 4:16.**

A. 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많은 것을 행하실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은 사람 안으로 넣어지지 않을 수 있다. 부활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사람 안으로 일해 넣어진다—고후 4:16.

1.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행위 안에서 그분의 권능을 알리시기 위해 일하시지 않고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나누어 주시고 넣는 일을 하시기 위해 일하신다—갈 4:19.
2.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기 위해 환경을 사용하신다—고후 4:7-12, 살전 3:3, 요 16:33.
3. 부활 안에서 살고 부활의 하나님으로 조성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롬 8:28-29, 히 12:10, 렘 48:11.
4. 우리가 고난들을 통과할 때 우리 안에 날마다 지속적인 새롭게 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성취하실 수 있다—겔 36:26, 고후 4:16, 5:17, 계 21:2.
5.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마다 우리 안으로 부활의 하나님께서 더해지시는 것이다—골 2:19, 롬 8:10, 6, 11.

B. 욥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다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는 욥을 감소시켜서 아무 것도 아닌 이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욥의 존재만은 유지되게 하여(욥 2:6)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욥

안으로 나누어 주시기 위한 시간을 가지시려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곧 우리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는 것을 관심하신다.

V.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얻기 위한 그분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 사람을 신화시키기 위한 삼일 하나님의 움직임은 전적으로 연합된 영, 곧 우리 사람의 영과 하나로 연합된 신성한 영 안에 있다—고전 6:17, 계 1:10, 4:2, 17:3, 21:10, 비교 욥 12:10, 32:8.**

A.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써 그 영에 따라 모든 것을 하여 우리의 영에 생각을 두고, 주의를 기울이며, 관심해야 한다—갈 5:16, 25, 6:18, 롬 8:4, 말 2:15-16, 딤전 4:7, 살전 5:17, 엡 6:18, 유 19-21.

B.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완결되신 영이시며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고후 2:10, 딤후 4:22.

1.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과 똑같다—고후 3:16, 18, 마 5:8, 계 22:4.
2. 우리가 하나님을 더 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더 미워한다—욥 42:5-6, 사 6:5, 눅 14:26.

C. 우리의 영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만이 이기는 이가 될 수 있다—요일 5:4, 요 3:6 하, 고후 4:13, 롬 8:2.

D. 우리가 모든 것을 그 영에 따라 행하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육체되심과 인간 생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 영의 쏟아부음을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새 사람,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가 되게 할 것이며 그것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빌 1:19, 엡 4:4.

E.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을 다루시는 목적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이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누림이 절정에 도달할 때까지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얻고 그분께 참여하고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을 더욱더 누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다—빌 3:8-9, 계 21:2.

F.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심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을 다루심의 목적에 관한 위대한 질문과 욥에 대한 위대한 대답이 되는 신약 전체이다.

VI.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욥은 하나님을 보았고 그의 개인적인 체험 안에서 하나님을 얻었으며 자신을 싫어하게 되었다—욥 38:1-3, 42:1-6.**

A.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한다—엡 1:17-18, 3:16-17, 고전 2:9-16, 고후 4:13.

1.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을 더 바라볼수록 그분의 모든 성분들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더욱 받아들여 우리의 내적 공급이 된다—고후 4:16-18.
2.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주의해야 하며 주님의 우리의 거처와 우리의 충족함의 비결로 취해야 한다—고후 2:13, 7:5-6, 말 2:15-16, 시 91:1, 빌 4:11-13, 시 90:1-11, 31:20, 사 32:2.

B.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처리해야 한다—고후 3:16, 18, 마 5:8, 13:18-23.

1.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재조성되어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지배받고 다스림받고 통제받아야 한다—엡 4:23, 신 17:18-20.
2.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집을 위한 우리의 열정이신 그분으로 충만된 감정을 가짐으로써 주님의 사랑으로 불타야 한다—고후 5:14, 딤후 1:6-7, 요 2:17, 막 12:30.
3.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에 의해 굴복된 의지를 가져야 하고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의지는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에 복종할 수 있다—빌 2:13, 비교 아 4:1, 4, 7:4 상, 5.
4. 우리는 반드시 값을 따질 수 없고 씻으며 순수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선하고 순수한 양심을 유지해야 한다—행 24:16, 딤전 3:9, 히 9:14, 10:22.

VII. **변화는 우리를 한 형체, 곧 옛 사람의 형체로부터 또 다른 형체, 곧 새 사람의 형체로 옮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죽이는 것에 의해 성취된다—고후 4:10-12, 16-18.**

A. 고린도후서 4 장 10 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말한다. '죽게 한 것'은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죽인다—고전 15:31, 36, 요 12:24-26, 고후 1:8-9.

B. 그리스도의 죽음은 복합적인 영 안에 있다. 그 영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죽음의 효능의 적용이다—출 30:22-25, 롬 8:13.

C.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항상 복합적인 영에 의한 죽임 아래 있는 생활이다. 이러한 매일의 죽임은 죽이는 무기인 환경과 함께하는 내주하시는 영에 의해 수행된다.

1.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의 일은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존재를 조성시키시는 것인 반면에 우리 밖에 있는 그 영의 일은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타고난 존재의 모든 방면을 허무시는 것이다.
2. 타고난 우리의 존재는 어떤 의미도 없다. 오직 그 영께서 우리의 존재 속에 조성하시는 것만이 계산된다—비교 렘 48:11.
3. 우리는 운행하시는 그 영께 협력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안배하신 환경을 받아들여야 한다—빌 4:12, 엡 3:1, 4:1, 6:20, 고전 7:24.

D. 하나님의 신성하고 주권적인 안배 아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죽이는 것을 통하여 모든 것이 우리의 선을 위해, 곧 우리의 변화를 위해 협력한다—롬 8:28-29, 비교 시 31:15 상.

1.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불평이 최상의 기도, 곧 하나님께 가장 즐거운 기도일 수 있다. 우리가 불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맏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다—비교 시 18 편, 칭호.
2. 우리는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기도를 모르며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룸을 위해 우리가 느끼는 부담에 따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며 우리의 탄식 안에서 그 영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다—롬 8:23, 26, 비교 대하 20:12, 왕상 8:48.

E. 환난은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들을 가진 은혜의 달콤한 방문이자 은혜의 육체되심이다. 은혜는 주로 환난의 형태로 우리를 방문한다—고후 12:7-10.

F. 환난을 통해 우리의 타고난 존재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이는 효력이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적용되며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더하실 수 있는 길을 만드신다—고후 1:8-9, 4:16-18.

G.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을 낳는다. 단련은 환난과 시험을 견디고 체험한 결과로 인정된 자질이나 속성이다—롬 5:3-4.

VIII.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을 다루시는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충만한 정도로, 곧 그분 이외에 그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정도로 하나님을 얻어서(빌 3:7), 그들을 통해 그분이 표현되시는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의 성취를 위한 것이다(창 1:26).

© 2013 Living Stream Ministry